

##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고등교육의 성격 변화 -엘리트적 특권에서 시민권 획득으로-

정경순(한양대학교, 강사)\*

---

### 요 약

---

이 연구는 평생교육체제로서의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확산에 내포된 고등교육의 성격 변화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늘날 고등교육의 세계적 확산은 전통적 대학교육의 증가와 함께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같은 비전통적 학습과정에 의해 더욱 증폭되고 있는 데,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의 도입에 의한 고등교육의 확산 현상은 고등교육의 양적 증가라는 차원을 넘어 고등교육의 성격 자체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하여야 할 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교육 체제와 관련된 고등교육의 개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횡단적·시계열적 자료의 통계분석을 통해 세계적 범주의 고등교육의 확산 양상을 확인해 보고, 그 확산의 동인이 무엇인가를 검증해봄으로써 고등교육의 변화된 성격을 조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오늘날의 고등교육은 개방형 고등교육체제 도입을 위시하여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모습을 띠고 확산되고 있으며, 이러한 세계적 확산의 동인은 개별국가의 특수성이나 내생적 필요보다는 세계적인 보편문화와 담론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이 교육민주화나 평생학습 등과 같은 세계적 문화 이데올로기의 영향으로 종래의 엘리트적 성격으로부터 시민권적 성격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주제어: 고등교육의 팽창, 고등교육의 성격 변화, 개방형 고등교육체제, 평생교육 담론의 확산

---

근대 국가의 형성과 함께 시작된 서구의 교육제도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발전하여 왔다. 초·중등교육과 같은 기초대중교육의 확산(Meyer et al., 1992a, 1992b; 차윤경, 2000)에 이어 고등교육도 196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여 90년대 중반 이후에는 더욱 급속히 증가되어 최근에 이르러서는 전 세계 고등교육적령기 인구 층의 31.5 퍼센트가 고등교육을 받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80퍼센트 이상의 청소년층이 고등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up>1)</sup> 그러나 고등교육은 단순히 이러한 양적 증가에만 그

---

\* 제1저자: 정경순(429-702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동보apt 101-1721, angela77@paran.com)

치지 않고 세계 담론의 중심 주제로도 부상하고 있는데 교육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국제 기구는 물론, 주목적이 교육이 아닌 기구나 단체들조차도 핵심의제로 고등교육 관련 문제를 설정하고 있다. 예컨대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을 주창하며 기초교육의 전 세계적 보급에 관심을 기울여오던 유네스코가 1998년 ‘세계고등교육회의(World Conference on Higher Education)’을 개최하여 ‘21세기를 위한 고등교육 세계선언: 비전과 행동’을 발표하고, 2002년부터는 ‘고등교육, 연구, 지식에 관한 유네스코 포럼’을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당초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국가들 간의 경제협력과 개발을 위한 기구로 출발한 OECD는 일찍이 교육체제를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을 지원하는 인적자원 형성의 핵심기제로 간주하여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순환교육과 ‘모든 이를 위한 평생학습’을 주장하여 오던 중, 2003년 2월에는 OECD 교육관련 최고관리자 회의를 개최하여 6대 전략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하나로 세계경제 안에서의 고등교육을 제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처럼 고등교육이 사회발전과 결부되어 세계 담론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으나, 주목하여야 할 점은 고등교육의 단순한 양적 증가보다는 그 질적 변화일 것이다. 그것은 고등교육을 통한 사회발전 담론들이 올바른 방향성 정립을 위해 변화되고 있는 고등교육의 성격 파악이 필요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고등교육 확산의 양상 자체가 성격 변화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오늘날의 고등교육이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 학위과정의 확산을 통해서서는 물론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같은 비전통적 학습과정을 도입하게 됨으로써 확산이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목하여야 할 점은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의 도입이 단지 대학문호의 개방에 의한 고등교육의 기회확대라는 차원을 넘어 대학구성원의 분포나 특성에 변화를 가져옴으로써 종래의 엘리트적 성격이 짙은 고등교육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교육 확산에 수반된 성격변화를 정밀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통적 교육과정과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통한 확산을 동시에 고찰하는 한편, 그러한 확산의 동인을 심층적으로 구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통한 고등교육의 확산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의 양적 확산에 내포된 질적 변화에 착목하여 고등교육의 변화되고 있는 성격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평생교육 체계와 관련된 고등교육의 개방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하여 횡단적·시계열적 자료의 통계분석을 통해 세계적 범주의 고등교육의 확산 양상을 확인해보고, 그 확산의 동인을 검증해봄으로써 고등교육의 변화된 성격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은 고등교육의 세계적 확산과 그 성격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보다 정밀화하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1) 세계교육통계에서 2002년도 고등교육취학률이 80% 이상을 보이는 국가는 핀란드(87.5), 한국(84.7), 스웨덴(83.4), 미국(83.2), 마카오(80.8), 노르웨이(80.7)의 6개국이다.(UNESCO Yearbook, 2004)

## I. 고등교육의 개방

12세기 중세 유럽에서 조합의 형태로 출발한 대학은 2차 대전이후 고등교육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게 되면서 1960년 이후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나갔다(Riddle, 1990; Meyer et al., 1977a). <표 1>은 1960년대 후의 고등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제시한 것이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965년도 고등교육 취학률이 세계평균 5.6%에 불과하였으나 2002년에 이르면 평균 31.5%를 넘어서고 있다. 시기별 세계평균을 보면 1965년경부터 1995년에 이르도록 평균 5%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1995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5년 동안에는 10.24%나 증가하고 있어 90년대 후반에 고등교육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로는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들이 30% 내외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서구지역은 2000년에 이미 50%를 넘어서고 있어 Trow가 말한 고등교육 보편화의 단계<sup>2)</sup>로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구소련을 비롯한 동구권은 1985년에서 1995년에 이르는 시기 동안 증가율이 0.75%에 그친 반면, 이후 시기인 1995년에서 2000년에 이르는 5년 동안 무려 11.65%의 증가율을 보여 사회주의의 붕괴에 따른 정치적 혼란의 여파와 반등을 드러내주고 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경우 비록 사하라이남 지역이 5%를 조금 넘어서는 낮은 취학률을 보이고 있으나 중근동이 포함된 북부아프리카 지역은 1995년에 이미

<표 1> 연대별 · 지역별 고등교육취학률

(단위: %)

구 분	1965년	1975년	1985년	1995년	2000년	2002년
아시아/오세아니아	5.15	7.31	11.04	18.03	24.64	29.62
중근동/북 아프리카	6.67	6.32	12.40	16.35	27.00	31.92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0.57	1.06	2.28	3.63	5.05	5.55
동구/구 소련권	7.89	14.93	26.18	26.93	38.58	43.13
서구/ 북미권	14.65	21.86	27.29	46.61	53.45	57.01
라틴아메리카/카리브지역	3.46	11.51	14.89	18.36	28.31	26.63
세계 평균	5.62	9.21	14.31	19.38	29.62	31.52

출처: UNESCO Yearbook (2004)

2) M. Trow는 고등교육의 확산 단계를 취학률을 준거로 3단계로 구분하였다. 취학률이 15%이하일 경우를 특권으로서의 엘리트교육 단계, 16%를 넘어 50%에 이를 때 까지를 대중화 단계, 그리고 50% 넘어서면 고등교육이 모든 이에게 확산되는 보편화 단계로 지칭하였다.(Trow, 1974)

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였으며, 1995년 이후 2000년에 이르는 동안에는 10.6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이 지역 또한 고등교육 확산의 예외지역이 아님을 보여주며, 결국 고등교육의 확산이 전 지구적 범위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등교육의 이러한 확산 현상은 정규의 대학교육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힘들다. 비록 각 국가마다 교육제도에 다소의 차이가 있어 이러한 통계 수치 안에 비정규 고등교육 과정에 의한 증가율이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지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곤란하나 1960년대부터 전 세계적으로 태동되고 확산되어 나간 평생교육의 흐름과 이에 부응한 고등교육 개방에 따른 비정규 고등교육과정 취학생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즉 고등교육의 급격한 세계적 확산현상은 평생교육 담론의 보급에 따른 대학의 개방과 이의 가시적 형태인 개방형고등교육체계(Open Higher Educational System)의 도입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대학의 개방이란 고등학교 출신자들을 선발 시험을 거쳐 일정 수만을 수용해서 정규의 고등교육과정을 실시하는 전통적 제도를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극복하고 대학교육의 적령기를 지난 사람들을 우선적 대상으로 시험적 선발 없이 받아들여 고등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일련의 시도들은 19세기 중엽 주로 영국의 전통적 대학들에서 시작되고 실천된 대학확장운동(University Extensional Movement)에서 출발하였으나(양병찬, 1995), 2차 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성인교육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오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의 핵심기관인 대학은 확장 및 개방의 실천 정도에 따라, 기존의 대학 내에 계속교육부, 성인교육부, 교외학습부(Extramural Study) 등과 같은 전담부서를 두고 성인 대상의 확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소극적 개방에서부터, 다수의 국가나 대학이 연합하여 설립한 consortium 형태의 원격교육기관에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중간적 개방, 나아가 한 국가 내에 전통적 대학과는 별도로 독립된 형태의 개방대학(Open University)을 설치하는 가장 적극적인 개방 등으로 다양하게 발전하고 있다. 이처럼 고등교육 단계에서 다양한 개방 유형과 방법을 통해 실시되어지는 학위 및 비학위과정의 제도를 총괄하여 개방형고등교육체제라 할 수 있다.

<표 2>는 개방형고등교육체제의 세계적 확산 정도를 제시한 것이다. 세계 207개의 주권국가와 자치령 중 자료 입수가 가능한 188개 국가를 대상으로 하여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의 유형별 분포를 지역에 따라 구분한 것인데, 정확한 상황 파악이 힘든 14개 국가를 제외한 174개의 국가에서 어떤 형태로든 개방형 고등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유형별로는 독립적 개방대학(38.3%)을 설치하거나 연합형 개방(37.8%) 등과 같은 적극적 개방이 기존 대학에 확장형 프로그램(16.5%)을 추가하는 것 같은 소극적 개방보다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별 분포에서는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56.6%)과 서구권(60.9%)은 독립적 개방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고등교육의 성격 변화

<표 2> 고등교육의 개방유형별 분포

(단위: %)

구 분		독립개방대	연합형개방	확장프로그램	기타 <sup>3)</sup>	지역별합계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 수	21	8	4	4	37
	지역내 비율	56.6	21.6	10.8	10.8	100.0
	세계 비율	11.2	4.3	2.1	2.1	19.7
중근동/북아프리카	국가 수	9	5	6	0	20
	지역내 비율	45.0	25.0	30.0	0	100.0
	세계 비율	4.8	2.7	3.2	0	10.6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 수	9	22	5	9	45
	지역내 비율	20.0	48.9	11.1	20.0	100.0
	세계 비율	4.8	11.7	2.7	4.8	23.9
동구/구소련권	국가 수	8	9	10	0	27
	지역내 비율	29.6	33.3	37.0	0	100.0
	세계 비율	4.3	4.8	5.3	0	14.4
서구/북미	국가 수	14	7	2	0	23
	지역내 비율	60.9	30.4	8.7	0	100.0
	세계 비율	7.4	3.7	1.1	0	12.2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 수	11	20	4	1	36
	지역내 비율	30.6	55.6	11.1	2.8	100.0
	세계 비율	5.9	10.6	2.1	0.5	19.1
세계 합계	국가 수	72	71	31	14	188
	세계 비율	38.3	37.8	16.5	7.4	100.0

출처: World higher education database 2004/5 (IAU., 2004), Guide to Higher Education in African. (IAAU.,2004), National Reports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47th Session (IBE.,2004), World Data on Education, 5th ed.(IBE.,2003) 등에서 ISCED 5,6 단계의 개방형고등교육기관을 취합하고 불분명한 자료는 해당국가의 교육부 혹은 대학의 홈페이지를 통해 보완함.

이 우세한 반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연합형 개방(55.6%)이 우세하고, 구 사회주의 권역은 기존 대학을 통한 확장형 프로그램(37.0%)에 의존함을 보여주고 있어 각 지역별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중근동과 아프리카 지역도 개방에 적극적이라는 것이다. 중근동 지역은 세계적 분쟁 지역이자 전통적 회교권이지만 북아프리카와 함께 독립적 개방대학의 설치(45.0%)가 활발하다<sup>4)</sup>. 또한 주목해야 할 점은 <표 1>에서 고

3) '기타'로 구분된 경우는 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일반적인 개요는 제시되어 있으나, 고등교육이나 대학의 개방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정확한 상태를 파악할 수 없는 형태를 말함.

4) 세계적 분쟁지역인 팔레스타인에는 1985년 Al-Quds Open University가 설립되어 19개 study

등교육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던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정확한 자료 확인이 곤란한 20%를 제외한 80%에 달하는 국가에서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기존 대학의 확장형 프로그램에 의한 소극적 개방보다는 독립적 개방대학을 설치하거나 (20.0%), 인근 국가와의 연합형태로(48.9%) 인터넷이나 위성통신매체들을 활용하여 원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적극적 개방체제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통계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960년대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고등교육이 대학의 개방이라는 형태를 통하여 그 양적 팽창에 상당한 정도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며, 정규고등교육의 여건이 무르익지 못한 지역에도 오히려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의 도입을 통해 고등교육이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점이다. 결국 정규대학에 의한 전통적 학력인정 체제와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에 의한 비전통적 학습인정 체제가 병행됨으로써 고등교육이 보다 급속하게 확산된 일면이 있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수준이나 정치적 안정도가 비교적 낮은 편인 아시아 지역에서 세계적 규모의 독립적 개방대학을 통한 원격교육이 활발한 것이 단적인 예가 될 것이다. 예컨대 한국과 마카오는 고등교육 취학률이 80%를 넘는 국가들로 독립적 개방대학의 설치를 비롯하여 산업대학이나 각종 원격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처럼 유별나게 취학률이 높은 사례를 세부적으로 분석해보면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통한 고등교육의 팽창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3>은 한국의 시기별 고등교육의 취학률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고등교육은 1945년 이전에는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1955년경에 이르면 6·25라는 민족 전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5%대를 넘어서기 시작하였고, 1980년경에는 이미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진입<sup>5)</sup> 하고 있다. 이후 1980년에서 1985년의 5년 동안에는 11%가 넘는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되어 1995년경에 이르면 취학률이 50%를 넘어섬으로써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1995년부터 2000년의 5년 동안에는 무려 25%를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2004년도에 이르면 비록 대학원생이 포함된 수치이긴 하나 고등교육 취학률이 90%를 넘어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이처럼 높은 고등교육 취학률을 보이는 것은 정규 고등교육 자체의 확산에도 기인하지만,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통한 비전통적 학습이 활발해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center에서 30,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재학 중이며, 전통적 회교국가인 이란도 Payame Noor Open University를 설치하여 185개의 지역학습관에서 331,177(2000년)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

5)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이 75년 이후에 10%대를 넘어서고 8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고등교육의 대중화 단계에 진입하게 된 이면에는 최초의 개방형 고등교육기관인 한국방송통신대학(1972년)과 이공계 개방형 대학인 산업대학(1984년)의 개설에 의한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다.

<표 3> 한국의 연대별 고등교육 취학률<sup>6)</sup>

(명 / %)

구 분	정규대학생수	개방형대학생수	전체취학률 (a)	정규대취학률 (b)	개방대취학률 (a)-(b)
1925년	321		0.02		
1935년	984		0.06		
1945년	7,100		0.42		
1955년	79,000		5.49		
1965년	141,636		6.31		
1975년	294,226		11.73		
1980년	611,034		19.82		
1985년	1,260,353		30.96		
1990년	1,466,852	200,620	38.48	33.85	4.6
1995년	1,889,833	435,647	56.20	45.67	10.5
2000년	2,829,015	530,773	82.01	69.05	12.7
2004년	3,034,491	519,409	92.75	79.20	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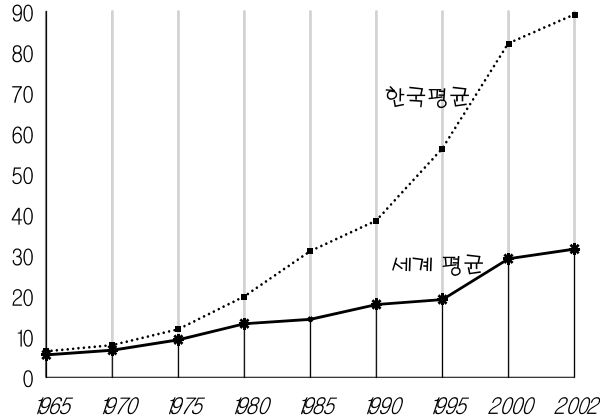
\* 정규대학생 수는 대학/전문대학/교육대학/대학원의 학생 수를 합산한 수치이며, 개방형대학생 수는 방송대학/산업대학/기술대학/원격대학/원격전문대학의 학생 수를 합산한 수치이다.

<표 3>에서 전체 취학률과 정규대 취학률과의 격차인 개방대 취학률을 보면, 1990년에는 5%정도이나, 이 격차는 계속 증가하여 2004년의 경우에는 14%에 이르고 있다. 이는 고등교육의 개방화가 그만큼 활발하게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이 소수 엘리트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이를 위한 고등교육’(Higher Education for all)으로, 그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다.

한편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실은 이와 같은 1995년 이후의 한국의 급속한 취학률 증가 현상이 [그림 1]과 같이 고등교육의 세계적 확산 시기와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다. 한국이라는 개별국가의 교육제도가 개방형 체제로 변화되고 고등교육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세계적 교육제도의 변화나 교육확산 현상과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무엇

6) 한국의 고등교육 취학률에 대한 국내외의 통계가 다소 차이가 나는 점을 감안하여 이 표에 제시된 수치는 연구자가 공인된 기관의 원수치를 취합하였다. 즉 1955년까지의 학생수는 International historical statistics 에서, 1965년 이후의 학생수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에서, 그리고 인구 수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서 20-24세 인구수를 취합한 것이다. 취학률은 학생수/취학적령인구\*100으로 산출하였으나 취학적령인구의 범위나 대상 학생의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시기별 추세 확인을 위한 상대적 수치라고 볼 수 있다.

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의 해명을 위해 고등교육의 확산을 설명하는 제 논리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 고등교육 확산의 추세 비교

## II. 고등교육 확산을 설명하는 논리들

고등교육이 한 개별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원인에 대하여서는 시각에 따라 다양하게 설명되어 지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확산의 원인이 개별 국가내의 특수한 환경과 상황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내재적 관점과 개별국가의 특수성보다는 국가 외부 세계로부터의 압력이나 영향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보는 외재적 관점으로 대별할 수 있다.

### 1. 내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은 한 국가 내부의 특유한 정치경제적 상황과 조건들의 특수성과 이를 수용하는 개별행위자들의 합리적이고도 의도적인 선택의 결과로서 고등교육이 팽창된다고 보는 관점으로 팽창의 주원인이 내생적임을 강조하는데, 그 행위자가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지 혹은 수요자적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국가와 개인차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고등교육의 공급자적 위치에 있는 국가는 주로 기능주의적 관점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추구하는 행위자로서 국가발전과 사회적 통합이라는 목표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 (Benavot, 1992; Robinson & Fuller, 1992). 한편으로는 국가차원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다

른 한편으로는 사회적 일체감 형성을 통한 국가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목적을 위해 각종 교육제도와 정책들이 효율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 세계화와 지식기반사회의 대두라는 전 세계적 흐름 속에서 국가경쟁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고등교육을 그 핵심적 기제로 간주하여 교육의 전반적 기초를 인적자원개발에 두고 효율성을 준거로 고등교육기관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지원하는 한편, 경제성의 원칙에 입각한 고등교육 팽창정책을 펴게 된다. 예컨대, 대학도 비용이 저렴하게 드는 개방형 대학을 설치하거나, 단기간에 직업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단기기술대학이나 산업대학, 직업전문대학 등을 확산시키는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반면 후자의 경우는, 국가는 경제적 목적에서만 아니라 정치적 안정이나 혹은 정권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고등교육 제도나 규모를 적절히 조정한다는 것이다(손준중, 1994, 1995). 한 국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민들 간의 사회적 일체감 형성이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고등교육의 이수자들이 국가의 지도자나 여론 주도세력으로서 기능하게 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권자의 필요성에 따라 고등교육의 공급 양을 적절히 조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특히 식민지 상태에서 갓 벗어난 신생독립국이나 경제적 후진성을 띠고 있는 개발도상 국가는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혹은 경제적 취약성이나 사회적 혼란의 미봉책으로써 고등교육을 조정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관점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발전 정도와 고등교육 취학률은 정비례하나, 대학에 대한 정부규제의 정도와는 반비례한다고 추론해 볼 수 있다.

한편 개인적 차원에서는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 개별적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 필요가 실제적인 것인지 혹은 상징적인 것인지에 따라 인간자본론적 관점과 지위경쟁론적 관점으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인간자본론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은 보다 더 높은 교육을 받음으로써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되며, 따라서 교육에 대한 지출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것이다. 즉 교육을 더 많이 받음으로써 개인의 생산성이 그 만큼 증가하고 이는 곧 소득 증가로 귀결된다는 것이다(Schultz, 1961). 또한 이러한 개인의 생산성 증가는 당연히 집합적 생산력 증가로 연결되어 국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게 됨으로 국가도 국민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줘야만 할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고 이로 인해 보다 상급의 교육이 더욱 많은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입안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교육수준이 전반적으로 동반상승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반면 지위경쟁론적 관점에 따르면 개인들의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는 교육을 통한 실질적 소득 증가보다는 교육이 지닌 상징적 가치를 통한 지위경쟁에서의 우월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본다(Collins, 1986). 즉 위계적 사회계층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보다 우월한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 교육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는 보다 상급의 교육이 실질적인 소

득의 증가나 가치 있는 지식의 성장을 가져오기 때문이 아니라 졸업장이나 학위 등과 같은 신임장들이 문화적 화폐로서의 위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족적·언어적 다양성을 지닌 사회에서 소수 민족으로서 차별을 당하는 개인이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에 속한 개인은 평균 수준 이상의 교육을 받고자 하며, 그 결과 고등교육이 팽창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소수민족이 많은 이질적 사회이거나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한 사회일수록, 그리고 국민의 교육수준이 지속적으로 동반상승 되는 사회일수록 고등교육 취학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다.

## 2. 외재적 관점

내재적 관점에서는 개별국가의 특수성과 그에 부응하는 국가 및 개인의 현실적 필요에 따라 고등교육이 팽창된다고 보고 있으나, 외재적 관점에서는 개별 국가를 넘어 선 보다 광범위한 세계적 수준에서의 영향력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영향력이 경제적인지 혹은 문화적인 것인지에 따라 세계체제론적 관점과 세계문화론적 관점의 제도주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세계체제론적 관점에서는 세계사회가 위계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각 국가는 그 위계적 세계체제(world system), 특히 세계 노동시장의 구조 안에 편입되어 자국의 위치에 따라 적절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본다(Wallerstein, 1974; 이수훈, 1996). 즉 세계 노동시장이 그 경제력에 따라 핵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국가로 차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별 국가는 자신의 위치에 따라 그에 걸 맞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교육을 위시한 각종 국가 정책을 구사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1980년도 이후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영향 아래 세계경제구조가 개편되는 과정 속에서 국가 간 경쟁이 격렬해지자, 각 국가는 살아남기 위해 고등교육을 핵심기제로 사용하게 된다. 예컨대, 핵심부 국가는 세계체제 내의 헤게모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자국의 경제구조를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산업 위주로 전환시키는 한편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사양산업들을 값싼 노동력을 제공하고 정부규제가 약한 주변부 국가로 이전하게 되며, 주변부 국가들은 이를 자국 내에 유치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게 되는데, 이 경쟁 속에서 각 국가는 자국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등교육을 조정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핵심부 국가는 창의성을 지니고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첨단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확산시키게 되며, 주변부 국가는 핵심부 국가의 하청기지로써 저기술 단순노동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기초교육이나 직업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중견관리자를 위해 고등교육을 보급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반주변부 국가에서는 이런 경쟁의 와중에서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와 첨단 과학기

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고등교육을 확장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비록 그 목적이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국가가 경쟁적으로 고등교육의 확산 정책을 실시하게 되며, 세계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큰 국가일수록 고등교육 취학률도 증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제도주의적 관점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물질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는 세계체제론과는 달리 세계문화를 통한 이념과 모델의 세계적 확산 현상에 주목한다. 즉 제도주의(Institutionalism)는 보편적인 세계문화체제(world polity)를 가정하며, 특정한 정책 및 제도의 세계적 확산 현상을 개별국가들이 세계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한다(Boli & Thomas, 1997; Meyer et al., 1992, 1997; Schafer, 1999; 차운경, 2000; 차운경·함승환, 2005). 예컨대, 평등과 정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민주적 정치체제, 차별 없는 교육 제도 등과 같은 담론들은 세계문화체제내의 표준적 담론으로서, 이러한 담론들은 국제적 전문 지식인들에 의해 논의되고 구체화되는 과정을 거쳐 그에 적합한 새로운 제도와 정책모델로 개발되어 국제기구의 주도하에 권고 아래 개별국가로 확산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각종 국제기구들은 새로운 교육담론의 생산과 배포에 적극적으로 나섬으로써 세계문화를 전 지구적으로 확산시키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며, 특히 국제적 비정부기구(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INGO)들은 세계 보편적 담론과 문화모델의 보급과 확산의 핵심 운반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Boli & Thomas, 1999; Chabbott, 1999; Schafer, 1999; Schofer & Mcneaney, 2003).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가는 주도적 행위자라기보다는 국제기구에 의해 제시된 처방전에 따르는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는 건전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제도나 정책을 채택함으로써 국가적·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국가나 하부단위들은 이를 위해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며(Chabbott, 1999; Schafer, 1999), 이 과정에서 세계문화체제의 보편적 담론이나 가치가 국내 전문인들에 의해 수용되는 한편 소위 ‘합리적 타자’(rational others)로서의 세계문화모델이 국가 제도나 정책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 각종 제도나 정책이 동형적(isomorphic)으로 확산되는 것이다(Ramirez & Ventresea, 1992).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하면 교육적 담론의 생산과 유포에 관련된 각종 국제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일수록 고등교육 취학률도 높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제 이론들은 고등교육 및 개방형고등교육체제의 세계적 확산을 나름대로 해명하고 있으나 각각 한계점도 드러내고 있다. 내재적 관점은 소위 지구화로 인해 심화된 상호의존의 세계 환경 속에서 개별국가의 정책이 다른 나라와는 무관하게 존재할 수 없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아가 각종의 국제기구들이 교육을 포함한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세계사회의 영향력을 과소평가한다는 점에서 한계성을 보이고 있

다. 또한 지위경쟁론적 관점은 고등교육의 상징적 가치에 주목하고 있으나, 그러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근본 동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다. 반면에 고등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위계적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의 국가 간의 갈등과 경쟁의 산물로 바라보는 세계체제론은 지나치게 물질적 요인만을 강조함으로써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요인들의 영향력을 분석하지 못하는 경제환원론으로 귀착되는 한편, 제도주의적 관점에 대해서는 그 역의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결국 이들 각 이론들이 안고 있는 난점들은 고등교육 및 개방형고등교육체제의 세계적 확산의 동인을 탐색하는데 있어 단순한 추론을 넘어 실증적 자료를 사용한 보다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양적 확산의 이면에 배태된 질적 성격의 변화를 보다 설득력 있게 해명할 수 있는 단초를 포착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후속작업으로서, 한국의 고등교육 확산의 모습이 세계 고등교육의 확산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에 착목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고, 관련변수들을 선정하여 통계적 검증을 시도하였다.

가설1. 국가의 발전정도, 국민의 교육수준,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통제정도, 사회경제적 불평등정도, 세계경제에의 의존정도, 세계문화와의 통합정도에 따라 고등교육 취학률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가설2. 고등교육의 취학률 증가는 국가 내부의 필요성보다는 세계적 차원의 담론과 문화 접촉에 더 강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 각 이론을 대표하는 독립변수들

\* 내재적 기능주의: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도를 드러내는 객관적 지표로서 1인당 국민소득(GNI 2003)을 사용하며, 문화적 발전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15세 이상 인구의 성인문해율과 중등취학률을 사용함. 단 중등취학률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기능주의와 갈등주의 양 관점의 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능주의적 척도로서 고등교육의 수요 예측치로 사용하며, 회귀분석의 경우에는 국민소득과의 상관관계가 성인문해율보다 월등히 높아 제거하였음. 한편 정치적 과도기를 겪고 있는 취약한 사회일수록 교육에 대한 국가통제가 강하다는 논리에 따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통제 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국가의 독립년도를 사용하며, 통계분석 시에는 1945년 이후 신생독립국의 증가를 감안하여 이 시기를 기점으로 더미변수로 처리함.

\* 내재적 갈등주의: 사회적 불평등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로서 국가별 언어분화지수와 지니계수를 사용함. 언어분화지수는 다민족 국가의 인종 및 언어에 따른 불평등 지표이며, 지니계

수는 소득 격차에 따른 불평등지표로서 지니계수가 불평등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적 통계의 난점으로 인해 언어분화지수보다 표본수가 훨씬 작은 반면, 조사년도의 시차는 더 커서 회귀분석에서는 언어분화지수를 사용하였음.

\* 외재적 세계체제론: 한 국가의 세계경제에의 의존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로서 연간교역량, 해외원조액, 해외직접투자액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원조나 투자의 경우는 주로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의 일방적 흐름으로 인해 자료의 포괄성이 보다 큰 교역량을 지표로 사용함.

\* 외재적 제도주의: 개별 국가의 세계정치문화체제와의 통합 정도를 드러내는 지표로서 해외대사관 설치 수, 해외유학생 수, 각종 정부/비정부 국제기구 참여 수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시민사회의 진전과 함께 역할이 증대된 국제비정부기구(INGO)를 대표적 지표로 사용함.

### III. 자료 분석 및 해석

설정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국가별 횡단적·시계열적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 각종 국제기구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UNESCO, World Bank, UNDP 등의 자료는 인터넷을 통해 수집하는 한편 민족언어의 분화나 국가의 독립연도 등에 관한 자료는 각종 통계자료집과 관련 문헌을 참고하고, 자료가 불확실한 부분은 각 국 교육부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완하였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와의 가설적 관계는 <표 4>와 같으며, 종속변수는 UNESCO의 자료에

<표 4> 독립변수의 성격과 종속변수와의 가설적 관계

성 격	독 립 변 수	종속변수와 의 관계	출 처
국가경제발전	* 1인당 국민소득(GNI 2003년) (극단치 조정을 위해 log 변환 후 사용)	정의 관계	WDI 2005 (World Bank)
국민교육수준	* 15세 이상 성인문해율(2002년) 혹은 중등취학률	정의 관계	UNESCO yearbook2004
국가 통제	* 국가의 독립연도(1945년 이전 독립국을 1로 하여 더미변수로 변환 후 사용)	부의 관계	Taylor & Hudson(1976)
사회불평등	* 언어분화지수(1에 가까울수록 이질적 사회)	정의 관계	Lieberson(1981)
	* 지니계수(10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사회)	정의 관계	HDR 2004
세계경제의존	* 국내총생산액 중 교역량의 비율	정의 관계	WDI 2005
세계문화통합	* 국제비정부기구에의 가입 수(log변환 후 사용)	정의 관계	UIA 2000

수록되어 있는 2002학년도 고등교육 취학률을 사용하는 한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취학률 50%를 기준으로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다.

먼저 가설1을 검증하기 위해 Trow의 고등교육의 확산 단계에 따라 고등교육 취학률이 50% 이상을 넘어 보편화 단계에 이른 국가와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한 국가로 양분하여 각각의 독립변수들의 평균차이를 검증하였다. <표 5>를 보면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에 진입한 국가와 미진입 국가 간에는 교역량을 제외한 모든 변수들이 5%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 발전의 수준이 중진국 이상인 국가에서는 정치적 안정이나 경제적 발전은 물론 문화적 수준에 있어서도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 수준이 고등교육 취학률에 자연스럽게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에의 의존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교역량에 있어서는 진입국(67.96)이나 미진입국(67.46)이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세계경쟁의 격화가 고등교육의 취학률 증가와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5>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 진입국과 미진입국의 평균 비교

독립변수	진입국(N=33)	미진입국(N=94)	t값
국민소득	4.09 (0.44)	3.10 (0.56)	8.61*
성인문해율	97.12 (7.64)	81.42 (18.87)	6.64*
중등취학률	111.25 (20.99)	68.30 (25.88)	9.42*
언어분화	0.29 (0.20)	0.41 (0.29)	-3.40*
지니계수	32.75 (6.39)	41.75 (10.37)	-5.38*
교역량	67.96 (36.75)	67.46 (40.76)	0.06
INGO참가	3.25 (0.22)	2.70 (0.33)	9.57*

괄호 안은 표준편차, \*p<.05

다음에는 고등교육 취학률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 변인들 중에서 성격이 중복되거나 상관관계가 높은 변인들을 제거하여 고등교육 팽창을 설명하는 각 시각을 드러내는 대표적 변인들을 선정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즉 국민소득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중등취학률과, 표본수가 적은 지니계수 및 평균차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교역량을 제거하는 한편 더미로 변환한 독립년도를 포함시켰다. <표 6>의 결과를 보면, <고등교육 취학률 = -79.92 + 16.74 \* 국민소득 + 0.19 \* 성인문해율 -7.82 \* 언어분화 + 6.12 \* 독립년도 + 15.02 \* INGO참가>의 회귀방정식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 회귀모형은 F값 44.89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할 뿐 아니라, 결정계수가 0.74로 설명력이 74%에 달하여 비교적 높은 편이고, Durbin-Watson 통계량도 2.05로 오차항의 자기상관 문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전반적으로 이 회귀모형으로 고등교육 취학을 증가를 예측해보는 것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 고등교육 취학률에 대한 각 독립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해 보면, 1인당 국민소득의 회귀계수가 16.74로 가장 크며, 다음이 국제 비정부기구에의 참여도로 15.02를 보여주는데 이들은 5% 유의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고등교육의 취학을 증가시키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 정도에 따라, 그리고 세계문화에의 통합 정도에 따라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6> 고등교육 취학률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회귀분석 결과

구 분	비표준화계수(B)	표준화계수(β)	t값
국민소득	16.74 (4.07)	0.47	4.11*
성인문해율	0.19 (0.12)	0.14	1.57
언어분화	-7.82 (5.46)	-0.09	-1.43
독립년도	6.12 (3.68)	-0.12	-1.66
INGO참가 상수	15.02 (6.54)	0.21	2.30*
	-79.92 (15.39)		-5.19*
R <sup>2</sup> /Adj.R <sup>2</sup>	0.74 / 0.73		
D/W지수	2.05		
F값(d.f)	44.89 (5/78)***		

괄호 안은 표준오차, \*p<.05, \*\*p<.01, \*\*\*p<.001

다음에는 가설2를 검증하는 한편, 앞의 회귀분석의 결과가 고등교육 보편화의 미진입 단계에 있는 국가가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는데 있어서도 동일한 순서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고 어떤 요인이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 진입에 강력한 예측인자가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인 고등교육 취학률을 50%선에서 양분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하고 <표 6>에 투입된 독립변수들을 동일하게 투입하여 각 변수들이 고등교육 보편화 단계로의 진입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표 7>을 보면 우도비 검증에 의한 모델  $\chi^2$ 가 70.85로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자료의 관측결과와 예측결과의 분류 정확도가 92.9%, 수정 정분류율이 90.2%에 이르고 있어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형이 적절함을 보여주고 있다. 각 변인들의 회귀계수를 보면 국제비정부기구에의 참여 정도가 6.87로 유의수준 5%에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표 6>의 회귀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보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계수 1.51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도달하지 못한 국가가 고등교육 취학을 50%를 넘어서 보편화 단계로 진입하는 데는 국가의 경제적 발전정도 보다는 세계문화와의 통합정도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고등교육의 팽창은 개별 국가의 특수성보다는 세계문화체제에서 형성되는 표준적 담론이나 문화적 확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고등교육의 확산과 경제성장간의 긍정적 영향력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고(Benavot, 1992; Chabbott & Ramirez, 2000), 오히려 환경보호나 민주주의 혹은 인권증진에 긍정적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연구 결과(Drori et al., 2003)와 일맥상통하다. 한편 민족적 언어분화와 성인문해율, 독립년도들은 별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고 강력한 예측인자로서도 나타나지 않아 지위경쟁론이나 인적자본론 또는 국가통제론적 주장이 고등교육의 세계적 확산을 설명하는 데는 큰 설득력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7> 고등교육의 보편화 단계 진입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 분	B (S. E.)	Wald값	유의도
국민소득	1.51 (1.48)	1.04	.307
성인문해율	0.36 (0.20)	3.25	.072
언어분화	4.03 (3.09)	1.70	.193
독립년도	2.68 (2.17)	1.52	.218
INGO참여	6.87 (3.34)	4.23	.040*
상수	-58.41 (20.93)	7.79	.005**
모델 $\chi^2$ (d.f.)	70.85(5)***		
정분류율	92.9		
수정 정분류율	90.2		

N=84, \*p<.05, \*\*p<.01, \*\*\*p<.001

#### IV. 고등교육의 성격변화: 엘리트 자격에서 시민권으로

지금까지의 논증 결과는 오늘날의 고등교육의 성격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단초를 던져준다고 볼 수 있다. 고등교육 취학률이 내재적 특수성보다는 외생적 문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은 고등교육의 확산이 미시·현실적(micro-realistic) 차원의 '실제적 필요'가 아니라 거시·문화적(macro-cultural) 차원의 '이데올로기적 믿음'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교육의 팽창이 반드시 기능적 실재(functional reality)에서만 아니라 기능

적 신화(functional myth)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Meyer and Rowan, 1977b). 전통적인 기능주의적 관점에서는 국가발전이나 근대화의 진전과 같은 신화가 진실한 것이라고 전제함으로써 그 기능적 유용성을 강조하나, 제도주의적 관점에서는 이러한 신화는 세계문화체제 내에서 역사적으로 생성되어진 것으로서 흔히 민주화, 과학화, 국가발전계획, 인권 등과 같은 담론으로 전형화 되어져서 일종의 문화적 이데올로기로서 개별행위자의 의식 구조에 당연한 것으로(taken-for-granted) 인지됨을 강조한다. 예컨대, 평생교육 관련 세계 담론들이 UNESCO나 OECD등과 같은 국제기구나 그와 관련된 각종 NGO 활동 등을 통해 국내에 유입됨으로써 개별행위자들이 평생에 걸친 학습과 그에 대한 국가적 정책 시행이 국가 발전계획은 물론 교육민주화나 인권의 차원에서 당연한 것으로 인지하고 그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평생교육 담론들이나 이를 가시화한 개방형 고등교육체제와 같은 평생교육적 문화모델들이 각국의 고등교육제도에 수용되는 과정 속에서 양적 확산에 대한 기여보다 질적 성격변화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평생교육체제의 도입이 전통적 고등교육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개방형 고등교육기관의 취학률이 전체취학률의 14%이나, 터키나 태국의 경우는 40%를 육박하고 있다. 반면 개방대학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영국 Open University의 취학률은 양적으로는 전체 고등교육 취학률의 2%에 불과하나, 질적인 면에서는 94개국 출신의 다양한 학생구성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개방형고등교육체제의 도입이 단순한 양적 증가라는 측면에의 기여보다 성인학생의 입학, 정식제 교육과정의 도입, 세계적 차원의 문호 개방 등을 통해 전통적 고등교육기관의 엘리트적·폐쇄적 성격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된다는 점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것은 문화 이데올로기의 확산이 그와 관련된 지식이나 사람을 적절히 분류·정의하고, 특정한 자격을 부여하게 됨으로써 교육제도의 성격을 규정짓기 때문이다. 즉 특정 종류 혹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혹은 특정 영역의 지식체계가 어떠한 의미로 수용되어야 하는지를 정당화시키는 한편, 나아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교육제도가 사회의 역할구조를 재편하고 사회성원들의 삶을 전 영역에 걸쳐 재구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Meyer et al., 1997; 차윤경, 2001). 예컨대, 평생교육적 문화 담론과 이데올로기 및 그 구현체로서의 개방형 고등교육체제가 전통적 고등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고등교육의 엘리트적 성격이 흐려지고 대중교육의 시민권적 성격으로 변화되는 양상을 띠게 되는데, 이는 바로 교육제도를 통해 사회의 역할구조가 재편되고 사회성원들의 삶이 재구성되는 것이다.

Trow(1974)에 의하면, 고등교육이 초기 단계에서는 한정된 소수만을 대상으로 특권적 엘

리트 양성이 목적이나, 대중화 단계에 이르면 일정한 능력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 육성과 그들의 직업 준비에 목적을 두게 된다고 한다. 그러나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에 도달하면 모든 국민이 고등교육의 기회를 요구하며, 그 목적도 민주시민 양성으로 변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단순히 양적인 증가의 결과로서 일어나는 변화라기보다는 그러한 변화를 촉발시키는 동인이 평등주의적 교육민주화 담론과 문화모델에 연계되어 있을 때 가능한 것이며, 그럴 때만이 보편화된 고등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이 특권이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로서 일종의 시민권(citizenship)의 획득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즉 기초대중교육 이수자에 부여되던 시민권적 성격이 고등교육 이수자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이는 소위 문명사적 전환의 시대를 맞아 한편으로는 전 지구적으로 열린사회 시스템이 진척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근대산업사회를 지나 지식기반사회로 진전되고 있는 ‘새로운 사회적 현실’(new social reality) 자체가 보다 과학적이고 민주적인 의식과 창의적인 기능을 지닌 전문인, 그러면서도 보편적 ‘세계문화’를 포용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문성과 세계성을 겸비한 세계시민은 기초교육단계에서가 아니라 지식과 문화의 전진 기지로 볼 수 있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열린사회 속에서의 고등교육은 직업적 활동으로부터 공통된 세계문화의 창조와 발전까지를 지원하는 가장 핵심적이고도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한 개인이 고등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은 전 지구적 범위의 ‘공통된 참조틀’(common frames of reference) 안에서 훈련된다(Schofer & Meyer, 2005)는 것이며, 그러한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지식기반사회로 지칭되는 새로운 사회현실 속에서 새로운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의미이다. 이미 많은 국가에서 고등교육이 보편화 단계를 넘어 선 현실 속에서 대학생은 더 이상 엘리트나 지성인의 상징이라고 보기는 힘들며, 졸업장이나 학위 자체가 지위상승이나 취업보증서로서 기능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고등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회 모델이 요구하는 새로운 시민권을 획득한다는 의미가 더 크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된다는 것은 누구나 자기성장의 기회를 균등하게 가질 수 있는 인권 신장이라는 문화 이데올로기의 구현인 것이다.

## V. 결론

전체 교육체계 내에서의 각급 교육의 위상이나 성격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서열상의 문제이거나 기능적 유용성에 국한될 수 없는 문제이다. 각급 교육은 그 자체로서 존재 의의와 당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고등교육이 보편화된다고 해서 초등교육이나 중등교육을 대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등교육의 위상 자체가 낮아진 것도 아니다. 다만 고등교육의 성격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급변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고등교육은 지식의 생성과 전달, 보존 및 확산의 핵심적 인프라로서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한편, 새로운 사회 현실을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로서 인식되기에 이른 것이다. 즉 교육민주화나 평생교육의 강조라는 세계적 담론 속에서 전통적 학위과정의 대학교육은 물론, 개방형 고등교육체제를 통한 비전통적 학습과정에 이르기까지 고등교육이 확산되는 과정을 통하여 종래의 엘리트 자격의 부여로부터 시민권의 획득으로 그 성격이 변화된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고등교육의 시민권적 성격은 평등성의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교육의 질적 수월성과는 대치되는 개념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는 함께 추구되어야 할 목적인 개념이지 서로를 배제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닐 것이다. 고등교육의 개방을 통한 양적인 확대 자체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단언할 수도 없거니와, 소수 특권층을 대상으로 한 전통적 대학교육의 질이 더 우월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도 없다. 만일 한 국가에서 수월성 보존을 위해 소수의 엘리트에게만 고등교육의 기회를 제한하려 한다면 시대착오적 발상일 것이다. 이는 인간의 평등과 정의로운 사회구현과 같은 세계 보편적 문화 이데올로기를 당연시하는 믿음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즉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원하는 교육을....’이라는 평생학습사회의 구호는 선진사회를 지향하는 국가의 국민이라면 당연히 추구하여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인지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등교육의 대중적 개방과 질적 수월성의 확보는 국민의 교육복지 향상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 함께 추구되어야 할 별개의 사안이다. 작금의 대학개혁에 관한 분분한 논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특히 고등교육의 시민권적 성격을 직시하는 데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는 종래의 상아탑적 대학들이 개방형 체제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고등교육 자체가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그 성격이 변화되어 가기 때문이며, 바로 여기에 ‘모든 이를 위한 교육’이라는 세계적 담론의 적실성도 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손준중(1994). 한국고등교육팽창 논의의 의의와 한계. **교육문제연구** 2(6).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347-367.
- \_\_\_\_\_ (1995). 한국고등교육팽창에 대한 교육사회학적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5(2). 한국교육사회학회, 37-52.
- 양병찬(1995). 영국고전대학의 개혁과 대학확장제안. **사회교육학연구** 1(1). 한국사회교육학회, 41-59.
- 이수훈(1996). **세계체제의 인간학**. 서울: 사회비평사.
- 차윤경(2000). English education in the primary school: A comparative study. **교육사회학연구** 10(1). 한국교육사회학회, 25-144.
- 차윤경(2001). 현대교육제도의 형성과 팽창. 고희일 외. **신교육사회학**. 서울: 학지사, 135-178.
- 차윤경, 함승환(2005). 초·중등 정보과학교과 및 관련 정책의 제도화에 관한 비교연구. **비교교육연구** 15(1). 한국비교교육학회, 167-190.
- 통계청(2001). 장래인구추계. 통계정보시스템. <http://kosis.nso.go.kr/juro/index.html>
- 한국교육개발원(2004). 교육기본통계. <http://cesi.kedi.re.kr/jcgi-bin/index.jsp>
- 한승희(2004). **평생교육론 : 평생학습사회의 교육학**. 서울: 학지사.
- 황종건(1994). **사회교육의 이념과 실제**. 서울: 명지대학교 사회교육원.
- Benavot Aaron(1992). Educational Expansion and Economic Growth in the Modern World 1913-1985. in B. Fuller & R. Rubinson.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education*. New York: Praeger.
- Boli, John, and George M. Thomas(1997). World Culture in the World Polit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2, 171-190.
- Boli, John, and George M. Thomas(eds.)(1999). *Constructing world culture: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ince 187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bbott, Colette(1999). Development INGOs. in Boli Jhon and George Thomas(ed). *World polity in formation: A century of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Chabbott, Colette and Francisco O. Ramirez(2000). Development and education. in Hallinan, Maureen(ed). *Handbook of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Plenum

- Collins, R. 정우현 역(1986). **학력주의 사회**. 서울: 배영사.
- Drori, Gili S., John W. Meyer, Francisco O. Ramirez, and Evan Schofer (2003). *Science in the modern world polity: Institu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2004). *World higher education database 2004/5(CD-R)*.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and Association of African Universities(2004). *Guide to Higher Education in African*. NY: Palgrave Macmillan.
-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IBE) and UNESCO(2004). *National Reports to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ducation. 47th Session*. Geneva: IBE and UNESCO.
- International Bureau of Education and UNESCO(2003). *World Data on Education*, 5th ed. (CD-ROM). Geneva: IBE and UNESCO.
- Lieberson, Stanley(1981). *Language Diversity and Language Contact*,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Meyer, John W., Francisco O. Ramirez, Richard Rubinson, John Boli,(1977a). The world educational revolution, 1950-1970, *Sociology of Education* 50(October), 242-258
- Meyer, John W. and Brian Rowan(1977b). Institutionalized Organizations: Formal Structures as Myth and Ceremon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3. 340-363.
- Meyer, John W., David H. Kamens, Aaron Benavot, Yun-Kyung Cha, and Suk-Ying Wong(1992a). *School Knowledge for the Masses: World Models and National Primary Curricular Categories in the Twentieth Century*. Washington: The Falmer Press.
- Meyer, John, Francisco O. Ramirez, and Yasemin Nuhoglu Soysal(1992b). World Expansion of Mass Education, 1870-1980. *Sociology of Education* 65, 128-149.
- Meyer, John W., John Boli, George M. Thomas, and Francisco O. Ramirez(1997). World Society and the Nation-Stat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3, 144-181.
- Mitchell, B. R.(2003). *International historical statistics: Africa, Asia, Oceania 1750-200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 Ramirez, Francisco O., and Marc J. Ventresca(1992). Building the institution of mass schooling: isomorphism in the modern world, in B. Fuller and R. Rubinson, *The political construction of Education*. New York: Praeger. 47-60.

- Riddle, Phyllis(1990). University and state: Political competition and the rise of university, 1200-1985. Doctoral Dissertation, School of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CA.
- Schafer, Mark J.(1999). International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Third World education in 1990: A Cross-National Study. *Sociology of Education* 72, 69-88.
- Schofer, Evan, Francisco O. Ramirez, John W. Meyer(2000), The effects of science on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1979 to 1990,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5(Dec.6). 866-887.
- Schofer, Evan and Elizabeth H. Mcneaney(2003). Methodological Strategies and tools for the study of globalization, in Gili S. Drori, John W. Meyer, Francisco O. Ramirez, and Evan Schofer. *Science in the modern world polity : Institu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chofer, Evan and John W. Meyer(2005). The world-wid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in the twentieth century. unpublished paper. <http://iis-db.stanford.edu/pubs>.
- Taylor, L. Charles and Michael C. Hudson(1976). *World handbook of political and social indicator*(2nd ed.).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row, M.(1974), Problems in the Transition from Elite to Mass Higher Education . in OECD. *Politics for Higher Education*. Paris.
- UNDP(2004). Human Development Report. <http://hdr.undp.org/statistics/data>.
- UNESCO(2004). Unesco online database. UNESCO Institute for Statistics Online. <http://www.uis.unesco.org>
-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UIA)(2000). *The Year Book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Munchen: K.G. Saur, 2003/2004. Brussels: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
- Wallerstein, M. Immanuel(1974). The modern world-system, New York: Academic Press.
- World Bank(2005).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http://worldbank.org/data/wdi2005>.

- 논문 접수 2005년 8월 2일 / 수정본 접수 9월 13일 / 게재 승인 9월 21일
- 정경순 :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에서 사회교육을 전공하고 교육 및 복지 현장에서 실천적 경험을 익힌 뒤 한양대학교 박사과정을 통해 교육사회학 및 평생교육을 전공함. 문화와 교육 및 복지활동의 연계, 인간의 참 성장을 지향하는 각종 문해 활동 및 평생교육의 학문적 체계화 등에 관심이 있음.

*Abstract*

## The Changing Character of Higher Education by Lifelong Education System

### -Transition from the Elite to the Citizenship-

Jung, Kyung-Soon(Hany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nging character of higher education accompanied by its quantitative increases, focusing on the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through open higher education system. as a lifelong education system.

The global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has amplified not only by increase of traditional university education but also by non-traditional learning course such as open higher education system. The spread of higher education by the foundation of open higher education system is worthy of notice in view of resulting in changing the character of higher education beyond its quantitative increase.

So this study, using the open higher education related to lifelong education system as the starting point of researching, examined the global spread of higher education with statistical analysis of the cross-national and time-series data and got a view the changing character of higher education through inspecting of what is the driving force of this expansion.

As the result, higher education, currently, has expanded a globally isomorphic patterns with the establishment of open higher education system and confirmed the motive of global expansion was influenced from rather globally universalized culture and discourse than the specific conditions of a nation or endogenous need. This result means that the character of higher education changes from the elite to the citizenship by globally cultural ideology such as educational democratization or lifelong learning.

\* Key words: expansion of higher education, changing character of higher education, open higher education system, discourse of lifelong education